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성경: 시편 112편
(Tag:후손,복,시편,구약,대한민국,이스라엘)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
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
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9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
은 사라지리로다 (시112:1-10)

여러분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2절)

왜 후손인가? 한 천년은 살아야 하는데 100여년 밖에 살 수 없기 때
문. 그래서 한 3대까지 잘 믿어야 비로소 정확하게 깨우친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잘 깨우쳐야 하리라.

후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후손을 빨리 만들어라. 하나님의
상급에는 동일하다. 또는 다른 가정의 자녀를 함께 도우라.

그러면 누구의 후손인가? 1절에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

그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취급하는자. 그의 자녀가 복이 있다.

그 자녀는 강성하게 된다. 그는 큰 인물이 된다.

누구에게 부와 재물의 복이 임하는가?(3절)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2. 그의 후손에게.(또한 그는 강성하게 됨.)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정직한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자.

그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는 긍휼이 많으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우겨 씹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써야 할 경우가 닥쳐도 결코 선을 택하고 악을 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고(전혀 그럴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걸랑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참고 견뎌야 한다.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but)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형통한다. 단, 그 일을 정의로 행해야 하는 속제는 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만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라. 속지 말라.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빼앗겼다면 반드시 찾아내라.

속임을 당하고는 도와주는 셈 친다고 하지 말라. 왜 악인을 돕느냐?

마이너스 제공이니, 복에서 더 멀어졌다.

차라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꾸어줄 지언정 욕심 때문에, 속임을 당하여서 은혜를 베풀지는 말아라.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왜냐면 그는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므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7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상에는 흉한 소문이 많다. 요즘 더 그렇다. 악하고, 거짓되고, 그럴듯하지만 한쪽에 치우치고, 중요한 요점들은 빠진 말들이 많다. (특히 요즘 교회를 공격하는 말들이 그렇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이라도 그런 말에 속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직한 계시를 준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계시를 소망하자.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 중>

와싱턴대학은 미국의 12번째 명문 대학.(유대인들이 세움) 거기의 교수 랍비 철학자 구뜨리찌 박사를 만난 정태기 목사. 1년전에 약속하고, 하루 동안 만남.

세계 인구 66억. 유대인은 1900만. 미국에 900만. 그 중 40만 미국 유대인이 미국 모든 부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세계 노벨상의 1/3을 유대인들이 차지함. 이유가 뭐입니까? 유대인은 뭐가 다르니까?

유대인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작정하면, 그는 문을 열고 나가서 노벨상을 길거리에서 주어오면 된다. 유대인 중에는 노벨상과 맞먹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왜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이상을 타민족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경건한 모습 보여주면 된다.(특히 1-5세가 가장 중요함.)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노벨상이나 그에 걸맞는 인물이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혼을 했더라도 누구든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된다. 핏줄이 중요하지 않고 키우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구뜨리찌 박사는 정태기 교수를 만나려고 한국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하는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세계에는 2000년이 넘도록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자기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곧 유대인과 한국인이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을 899회, 중국으로부터 250회 이상) 그리고 구뜨리찌 박사는 그 증거로 타임지를 내 놓으면서 한국인의 IQ를 조사한 내용을 보여 줌. 타임지는 세계에서 어느민족의 IQ가 제일 높은지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한국인의 지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도 하였다.

그리고 정신력도 높다. 그런데 유대인과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 지능과 정신력을 신앙을 통해서 발산을 하는데 한국인은 그렇지 못하다. 신앙을 통해서 발산하지 아니하면 한국인은 악해지기 쉽다.

만약 한국이 통일되고 전쟁 준비에 쏟아붓는 물자를 연구나 산업에 쏟아 부으면 한국은 10년 내로 일본을 따라 잡는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절망 중에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연단하고 계신다. 특히 한국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생명되신 말씀에 착념하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자!

8 그의 마음이 건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된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9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구뜨리지 박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돈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에게 이런 복이 흘
러가지 아니한다. 적당히 가난해야 된다.

어떻게 부자로 살면서 가난하게 살 것인가?

그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어라. 단, 정의롭게 행하라. 기본
대로 행하거나, 자랑삼아 행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중에 들림을 받는다.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
은 사라지리로다 (시112:1-10)

-악인은? 그는 이를 갈면서 망해간다.

-그들을 꺾어치 말라. 그들은 사라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말씀:베드로전서 1장1-9절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1:1-9)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 잠깐 살다가 간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버지의 미리아심;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계획. 택정함을 입음. 택정했지만, 그것을 입어야 함.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만 효과가 있음.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죄와 저주를 씻어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평강이 많아야 심령이 건강해짐.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큰 사람이 됨.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산 소망을 주심. 진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생.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날 구원;휴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음.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때문에는 잠깐 근심함. 그러나 결국은 크게 기뻐하게 됨.

-test를 거친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됨.

-어렵다는 순간, 시험임을 눈치채라. 이때 잘해야 한다. 어려울 때 잘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순간이다.

-잘 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위기임을 눈치채라.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사람을 돌보라. 그들을 보살피라.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많이 실수하게 되며, 교만하게 되며, 앞날을 예측하지도 못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대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잘 나갈 때 두배는 조심해야 한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세속적인 부귀영화보다 귀하다.

-믿음과 경건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잘 나갈 때 더 도움이 된다. 왜냐면 하나님께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화려할 때 더 귀하며, 더 강력한 위력이 있으며,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나 이때의 믿음이 가장 겸손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차피 믿음은 영성이다.

-영성이란 보이지 않을 때 더 강력하다.

-보일수도 있다. 증언과 증거를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며, 꿈과 환상과 치유도 필요하며, 감격과 깨달음도 필요하다.

-그러나 영성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1:1-9)